한국 불교미술 진수, 일본서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도쿄국립박물관, '한국 미술의 보물상자'展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고려 불상, 불화 등 전시
한일 소장 오백나한도 2점
나란히 전시돼 눈길 끌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92 수대장존자(사진 왼쪽)와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제23 천성존자(사진 오른쪽). 도쿄국립박물관에 나란히 전시된다.

고려 시대 전 시기에 걸쳐 나한신앙은 성행했고, 이를 불교회화라는 조형언어로 시각화한 것이 '오백나한도'다. 하지만 고려불화 '오백나한도'는 몇 폭밖에 전해지지 않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현재 △제92 수대장존자 △제125 진보장존자 △제145 희견존자 △제170 혜군고존자 △제357 의통존자 △제427 원원만존자 등 6폭이 소장돼 있다.

800년 전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평안을 염원했던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2점이 일본에서 나란히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관장 후지와라 마코토)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미술의 보물상자-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초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4월 5일까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본관 특1·2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17건 25점 및 도쿄국립박물관 소장품 16건 16점 포함 총 33건 41점이 선보인다.

전시는 한국미술의 명품을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1장 '고려-아름다움과 신앙'에서는 세련된 장식미가 넘치는 고려 불화와 불상, 사경 등 신앙의 결실과 함께 화려한 귀족 문화를 보여 주는 청자와 금속공예품 등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한다. 아름다운 꽃잎 모양의 접시나 잔과 잔받침 등, 같은 모양의 청자와 금은기를 함께 전시해 고려 시대 공예 기술의 다양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소장한 고려불화 '오백나한도'가 나란히 전시되는 부분도 눈길을 끈다.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92 수대장존자와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제23 천성존자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장 '조선왕조의 궁중문화'에는 정조의 수원 화성 방문 행렬을 기록한 '화성원행도'와 흥선대원군의 기린흉배 등을 선보인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와 예술은 위기 때마다 간극을 잇는 다리가 됐으니 이번 전시는 그 다리 위를 함께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월명암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함께 환수한 1918년 작 비로자나삼신불도.

연구단체-사찰 협력으로 불화 환수

동북아불교미술硏 · 월명암
2월 21일 공개 환수식

해외로 유출됐던 한국불교 성보문화유산이 연구자의 학술적 확인과 사찰 신도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해 국내로 성공적으로 환수됐다.

양산 월명암(주지 행안 스님)은 "월명암 신도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자발적인 후원으로, 독일로 유출됐던 '비로자나삼신불도(毘盧遮那三身佛圖)'를 최근 국내로 환수하게 됐다"고 2월 8일 밝혔다.

이번 환수는 기존 정부나 대형 기관 중심의 문화유산 환수 방식과 달리, 연구자와 사찰, 신도들이 협력한 민간 주도형 환수 사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환수의 결정적인 계기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최선일)의 학술적 판단이었다. 연구소는 해당 불화가 1918년에 제작된 기년명 불화로, 완호정희 스님과 제자 낙현 스님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20세기 전반 영남 지역 불교회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성보임을 확인했다.

특히 이 작품은 제작 연대가 화기에 명확히 기록된 '기년명 불화'로, 제작 시기와 작가가 확정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1918년 작 비로자나삼신불도'는 지난 1월 21일 사찰에 도착했으며, 오는 2월 21일 오전 11시 월명암 법당에서 스님들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환수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고요한 마음 바탕에 명확한 통찰

㉚ 정혜쌍수(定慧雙修)

定 慧 雙 修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에서 정혜쌍수를 주창하며, 선정의 바탕 위에서 통찰의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을 강조하였다. 이는 초기불교의 계정혜(戒定慧) 삼학 가운데 특히 선정과 지혜를 중시한 가르침이다. 당시 불교계는 경전의 이론적 탐구에 치우쳐 실천적 지혜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좌선에만 몰두해 교학의 논리적 정합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조국사는 정과 혜를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닦아야 함을 역설하며, "입으로는 부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으로는 부처의 뜻을 행하며, 정과 혜를 쌍으로 닦는 것(定慧雙修), 이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설하며 대중을 독려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지혜와 자비가 원만한 열반을 성취하는 데 있다. 붓다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여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삶의 실상을 적확하게 통찰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거듭 설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사마타[定]와 위빠사나[慧]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마타는 '없앤다'는 뜻이니 온갖 번뇌를 없애기 때문이고, 또 '굴복'이라는 뜻이니 모든 감각기관의 나쁘고 훌륭하지 못한 것을 굴복시키기 때문이다. 또 '고요하다'는 뜻이니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고요하게 하기 때문이고, 또 '멀리 벗어난다'는 뜻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다섯 가지 욕망을 멀리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또 '굴복시킨다'는 뜻이니 탐욕·성냄·어리석음의 혼탁함을 청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정이라고 한다."

즉, 사마타는 번뇌의 방지와 소멸을 통해 심신의 고요한 안정을 뜻한다. "위빠사나는 바르게 보고, 분명히 보고, 능숙하게 본다는 뜻이고, '두루 본다', '순서대로 본다', '다른 모양으로 본다'는 뜻이니,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 지혜는 존재와 마음의 실상을 정확하고 다면적으로 통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정과 지혜가 서로를 토대로 조화를 이룰 때 수행은 삶 속에서 실질적인 힘을 지니는 공부가 된다. 고요한 환경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일은 비교적 쉽지만, 이해관계와 시비가 얽힌 현실의 삶에서 그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통찰에서 비롯된 판단의 힘이 필요하다. 나를 괴롭히는 사건 속에서도 고요하고 진실을 지키고자 수행을 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부처님처럼 마음 쓰다가도 비난과 갈등 속에서 쉽게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은 평소에 닦아온 통찰의 힘이 충분히 익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결국 수행이란 다툼과 소란이 끊이지 않는 일상의 중심에서, 마음의 고요와 삶의 진실을 지켜내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동국대, 인도 대학들과 교류 협력 논의

나란다대학 · 가우담붓다대학 방문…문화교류 · 학술탐방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월 20~30일 인도 북부 나란다대학(Nalanda University)과 가우담붓다대학교(Gautam Buddha University)를 방문해 학생교류를 포함한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사진〉

이번 방문은 동국대가 건학120주년을 맞아 인도 문화 교류활동 및 학술탐방을 위해 인도 현지에 교직원, 학생 등을 포함한 52명 규모의 방문단을 파견하며 성사됐다.

방문단은 1월 23일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 라즈기르에 위치한 나란다대학에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과 함께 나란다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출신 국가의 언어로 불경독송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단은 1월 29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그레이터 노이다에 위치한 가우담붓다대학을 방문했다. 가우탐붓다대학은 인도인들의 한국 문화 관심 증가에 따라 '자체적인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향후 동국대와 교류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